

메소아메리카지역에서 고대문명의 발생과 그 특징

정 광 선

장구한 원시공동체사회단계를 거쳐 계급국가가 형성되는것은 인류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다.

아메리카대륙에서도 원시공동체사회단계를 거쳐 고대문명이 발생발전하였다.

아메리카대륙에서 고대문명은 메소아메리카지역 다시말하여 현재의 메히꼬만과 유카탄반도를 포함한 중앙아메리카지역에서 제일먼저 발생하였으며 이 지역의 문화적영향을 받아 점차 아메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고대문명이 발생발전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더우기 문자가 없던 오랜 옛날의 력사는 유적유물에 의해서만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습니다.》(《김정일전집》 제8권 231페이지)

메소아메리카지역에 출현하였던 고대문명에 대한 서사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된것이 없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고대문명의 발생과 발전정도에 대하여서는 당시 인디안들이 남긴 유적유물을 통하여 그 면모를 가늠해볼수 있다.

메소아메리카지역에서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가장 이른시기의 유적유물은 올메크인들이 남긴 유적유물들이다.

올메크인들은 현재 메히꼬의 따바스꼬주와 베라끄루스주에 위치한 꼬아짜꼬알꼬스강류역에서 B.C.5100년경부터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다.

다른 인디안문화와 마찬가지로 올메크인들의 문화에 대한 서사자료는 없다. 고무나무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올메크라는 말자체도 그들자신이 자기를 가리킨 명칭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지역에 고무나무가 많은데로부터 후세의 사람들이 지어부른 이름이다.

올메크인들이 남긴 유적들은 현재 메히꼬의 베라끄루스주의 싘 로렌쵸와 라 벤따지역에 집중적으로 남아있다.

이 유적들에서는 돌로 조각된 거대한 머리와 비취로 만든 여러가지 정교하고 호화로운 공예품들, 오랜 세월의 흐름속에서도 거연히 솟아있는 대피라미드, 무게가 1 000t에 달하는 잘 연마된 사문석블록과 방대한 규모의 모자이크포장도로들이 발굴되었다.

싘 로렌쵸와 라 벤따에서 발굴된 올메크인들의 건축 및 수공예품들은 올메크문화의 계급적성격을 반영하고있다. 즉 건축물을 비롯한 올메크의 유적유물들은 B.C.1600년경에 올메크사회가 계급사회, 노예소유자사회에 들어섰다는것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먼저 메소아메리카지역에서 발굴된 농경문화유적을 통하여 이 지역에서 계급사회가 발생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사람들이 오래동안 자연을 개조하는 투쟁과정에 농사에 유리한 큰 강류역들에 정착하여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러한 지역에서 계급국가들이 형성되었다는것은 세계문명의 발상지들에 대한 연구과정에 밝혀진 일반적결론이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들에서 농경문화가 시작된지 2000~3000년이 지나 계급분화가 일어났다는것은 여러 고고학적발굴들을 통하여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B.C.5000년기의 문화유적인 에짚트의 바다리문화유적이 닐강류역에서 농경문화가 시작된지 2000년정도 지나 노예제국가가 출현한 력사적사실을 보여주는것을 비롯하여 세계 여러 지역의 신석기시대문화유적들도 사람들이 정착하여 농사를 짓기 시작한 때로부터 대체

로 2000~3000년이 지나 계급국가들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사회발전과정을 고려해볼 때 농사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는 꼬아짜 꼬알꼬스강류역에서 B.C.5100년경부터 농사를 지어온 올메크인들속에서 B.C.2000년기에 이르러 계급분화가 일어났다고 충분히 말할수 있다.

실지로 썬 로렌조근처의 엘 맨아티신전의 레식터에서 발굴된 유물들에 대한 고고학적년대측정자료들은 올메크문명이 B.C.1600년 혹은 B.C.1500년경부터 시작되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메소아메리카지역에서 발굴된 건축물들과 수공예품들을 통하여 올메크사회가 계급사회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돌로 된 사람의 머리를 형상한 조각상과 거대한 피라미드는 올메크인들이 남긴 유적 유물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것들이다.

썬 로렌조와 라 벤파에서 발굴된 사람의 얼굴을 형상한 거대한 현무암조각들은 올메크의 통치자를 형상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원시시대와는 달리 계급사회에 들어서면서 건축과 조각, 회화 등에는 계급적성격이 반영되게 되었다.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이 전적으로 노예소유자계급의 손에 장악되어있던 노예소유자사회에서는 모든 창조물들이 철저히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복무하였다. 그러므로 조각을 비롯한 미술작품의 주인공들도 거의 대부분이 국왕이나 집정관, 군사령관들을 비롯한 통치배들로 형상되었다.

올메크의 가장 중요한 유적들중의 하나인 사람의 얼굴을 형상한 돌조각들가운데는 무게가 거의 40t이나 나가는것들도 있다. 이 조각들은 올메크의 도시들에서 60mile(97km)이나 떨어진 곳에서 옮겨온 큰 현무암화산바위를 가공한것들이었다. 이것은 이 돌조각들이 올메크통치자의 요구에 따라 그를 형상하여 만든것이었다는것을 보여준다.

이밖에도 올메크유적들에서는 값진 비취와 흑요석공예품들이 많이 발굴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통치배들의 기호품이라고 믿어진다. 이 공예품들을 만드는데 리용된 비취는 썬 로렌조나 라 벤파에서 200km나 떨어져있는 파페말라동부의 모따스과강류역에서 채취된것이였으며 흑요석 역시 이곳에서 40km나 떨어져있는 엘 차이얼과 썬 마르틴 그리고 뿌에블로와 같은 파페말라의 고원지대에서 날라온것이였다.

당시의 생산력발전수준에서 일반평민들이 사치에 필요한 공예품을 만들기 위하여 이처럼 큰 품을 들이였다는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인것이다. 더우기 이곳에 있는 대피라미드는 연 수십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동원되어 건축한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동원시켜 거대한 건축물을 축조하였다는것은 권력을 떠나서는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에짚트인들이 올메크인들의 로동도구와 류사한 로동도구를 사용하여 피라미드와 같은 거대한 규모의 건축물들을 세웠고 에짚트의 피라미드들이 노예제사회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놓고볼 때 썬 로렌조와 라 벤파의 유적들을 창조한 사람들도 노예제사회단계에 있었으리라는것을 능히 가늠할수 있게 한다.

다음으로 올메크도시들의 파괴상을 놓고도 올메크사회가 계급사회였다고 볼수 있다.

올메크의 도시들이 몰락한 원인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설들이 나돌고있다.

고고학적년대측정에 의하면 올메크의 도시였던 썬 로렌조는 B.C.900년경에, 라 벤파

는 B.C.400년경에 몰락하였다. 일부 학자들은 올메크의 문화중심지들이 버림받은 원인을 인구의 과도한 증가와 그에 따른 과도한 생산활동에 의한 물원천의 고갈이라고 주장하고있으며 어떤 학자들은 지각의 붕괴와 침강에 의한 강물줄기의 변화가 올메크도시들의 몰락 원인이라고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자연적요인이 올메크멸망의 근본원인이라고 볼수 없다.

올메크의 유적들은 이 도시들이 자연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사람들의 이주에 의하여 몰락한것이 아니라 방화와 같은 의식적이며 체계적인 파괴에 의하여 몰락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더우기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이 도시들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 전혀 없었다는것을 증명하였다. 이것은 올메크사회에서 심각한 계급적대립이 존재하였으며 이러한 대립이 도시의 파괴를 가져왔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피라미드공사와 같은 방대한 건설공사들은 올메크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지배계급의 가혹한 억압과 착취를 전제로 한것이였다.

인구의 과잉과 물원천의 고갈 등 자연적인 요인들은 올메크인들의 처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을것이다. 가혹한 억압과 착취, 식량 및 물부족은 피지배계급의 불만을 자아냈으며 마침내 그들은 지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 떨쳐나서게 되었을것이다. 그들의 투쟁에 의하여 도시들이 파괴되고 몰락하였다고 보는것은 응당한것이다.

이처럼 썬 로렌조와 라 벤따의 유적유물들은 올메크사회가 노예제사회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올메크문명은 그후 마야와 톨테크, 아즈텍과 인카를 비롯한 아메리카의 다른 고대문명의 기초로 되였다. 올메크인들이 창조한 문명에 기초하여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에 마야와 인카제국이 수립되였다.

메소아메리카지역에서 발생한 고대문명은 다른 대륙들에 존재하였던 고대문명들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징을 가진다.

그 특징은 첫째로, 이 지역에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비롯한 다른 대륙들에 비하여 고대문명이 훨씬 뒤늦게야 발생하였다는것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대륙에서는 B.C.3000년에 첫 노예제국가가 출현하였다. 이것은 B.C.1600년경에 출현한 아메리카의 문명발생시기보다 훨씬 이른시기의 것들이다.

그 특징은 둘째로, 메소아메리카의 고대문명에 신권적성격이 강하게 반영된것이다.

올메크의 유적유물들은 올메크사회가 신권사회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올메크시기의 유적들에는 아메리카표범이나 깃털이 난 뱀을 비롯한 많은 신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각들과 공예품들이 있다.

라 벤따에 있는 당시 중앙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였던 대피라미드도 올메크인들의 종교활동과 관계되는 건축물이라고 추측할수 있다.

물론 올메크의 대피라미드가 어떤 목적에서 세워졌고 그곳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졌는가 하는 기록은 없지만 마야의 피라미드와 대비해볼 때 그것이 종교관계건축물이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실례로 마야의 도시 치첸-이짜의 피라미드는 도시의 종교적 및 정치적중심이였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통치자들의 영혼을 신과 련결시킨다는 장례행사를 진행하기 위한 돌신전들이 세워졌다. 제물을 바치는것과 같은 종교의식들도 신관들에 의하여 피라미드신전

에서 실행되었다. 중앙아메리카지역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마야문화를 비롯한 인디안문화가 올메크문화에 기초하고있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는 조건에서 마야의 피라미드가 종교행사를 위한 건축물이었고 마야사회의 정치적 및 종교적중심이였다는 사실은 올메크의 대 피라미드 역시 종교례식을 위한 건축물이였으며 정치적 및 종교적중심이였을것이라는 사실을 립증해주고있다.

에짚트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고대국가들에서는 대체로 전제주의적통치체계가 수립되어 신권이 왕권에 철저히 복종하였다. 그러나 국왕이 직접 신관으로 활동한 레는 없다.

고대그리스와 로마와 같은 유럽의 고대국가들에서도 왕정과 공화정, 제정이 존재하였고 종교를 통치의 사상적무기로 리용하였지만 통치자나 통치집단이 신관으로서 신권과 세속통치권을 한손에 그러쥐고 통치한것은 아니였다.

그 특징은 셋째로, 메소아메리카의 고대문명이 다른 지역들과는 달리 계승성을 가지지 못한것이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세워졌던 고대문명은 이후 봉건사회에로 이행하였다.

그러나 아메리카대륙의 고대문명은 유럽식민주의자들의 침략으로 완전히 말살되어 봉건사회에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오늘도 이 식민주의자들의 후손들인 미제는 《일극화》세계를 꿈꾸면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민족성을 말살하기 위하여 미쳐날뛰고있다.

우리는 제국주의자들이 떠드는 《세계화》의 본질을 똑똑히 가려보고 높은 반미계급의 식으로 무장하며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굳건히 다져나가야 할것이다.